

이야기 카드 1

돌려받은 시험지

건우는 일주일 내내 수학을 공부했다. 그런데 돌려받은 시험지에는 생각보다 훨씬 낮은 점수가 적혀 있었다. 뒤에서 누가 “몇 점이야?” 하고 묻는다.



이야기 카드 2

내가 안 했는데

청소 시간, 교실 창가 화분이 깨져 있었다. 지안이는 막 들어왔을 뿐인데, 친구 한 명이 “지안이가 그랬나 봐.” 하고 말했다.



이야기 카드 3

멈춰 버린 발표

모둠 발표 날, 유나가 칠판 앞에서 말하다가 갑자기 다음 내용이 생각나지 않았다. 교실이 조용해지고 몇몇이 키득거렸다.